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5
vol.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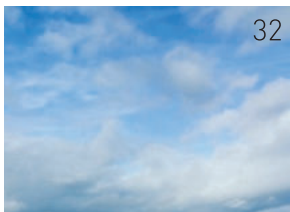
Wint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1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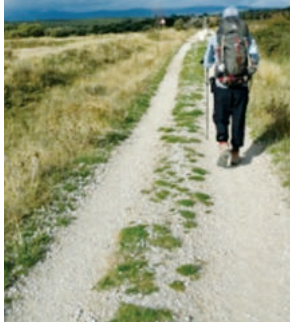
24



28



26



13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5년 겨울호

시론

- 3 약업계 새로운 변화, 중앙인이 선도합니다
정찬현(20회) 부회장

신임학장인사말

- 4 재도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위하여
한상범 학장

학교소식

- 5 약학대학 표지석 제막식 거행

6 동문회소식

인터뷰

- 9 중대창학100주년 및 약학대학창립60주년기념 현판 본교 기증
손동현(1회) 명예교수
- 10 6년제 약사탄생을 동문회사랑으로 멘토링
손의동(22회) 제49대 대한약학회회장 당선자

모교의날

- 11 제44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 12 제44회 모교의 날 골프대회

동아리소식

- 13 우리들의 힐링캠프
김승환(29회) 아코러스 단장

동기회소식

- 16 졸업 50주년 기념(1960년도 입학) 행사를 마치고!
조의환(8회) 동기회장
- 19 졸업 40주년 기념 추억 여행 이야기...
김종기(18회) 동기회 총무
- 24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마치며...
이해룡(28회) 동기회장
- 26 13회동기 부부 6차 해외여행 스페인을 다녀오다!
이종각(13회) 동기회 총무

별난동문이야기

- 28 웰다잉을 돕는 샘물호스피스
원주희(19회) 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문학산책

- 32 '삶은 죽음을 향한 순례다'
나를 찾아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김진섭(23회)

39 회비내역

- 41 장학기금
- 41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신임교수
- 43 만평
- 44 편집후기

약업계 새로운 변화, 중앙인이 선도합시다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청양띠 을미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6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중앙대 약대를 나온 많은 동문 선·후배들이 약사회를 비롯해 제약계, 학계,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로서 활약하여 우리나라 약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조찬휘 후보로 단일화하여 월등한 차이로 회장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이는 서국진 전 동문회장님께서 중앙인을 하나로 결집시킨 지대한 공로가 있었기에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문 선·후배간의 단합된 모습은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 손의동 교수님이 49대 대한약학회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더욱이 이광섭 동문이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으로 재선됨으로서 한국의 약계는 우리 중앙대 약대 동문들에 의하여 운전되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막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니 동문님들께서 이들이 약계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고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제가 존경하는 대한약사회 고 김명섭 명예회장님께서도 동문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동문간 화합과 단결을 남달리 주창하셨던 최고 정치가 이셨습니다. 이 분의 정신적 유지를 받들어 중앙인의 위상을 계승 발전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의약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2015년에는 동문회 뿐만 아니라 전 약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세우고 변함없는 동문회 사랑과 애정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이 배출된 6년제 약대 후배들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업계와 약사직능의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동문회는 6년제 후배들을 잘 인도하여 동문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동문회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동문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말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동문 선·후배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의약계 변화를 주도하고 리드하여 중대 약대 동문회와 약업계가 발전하는데 동참합시다.

끝으로 동문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 뿐만 아니라 현 장재인 회장님과 그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동문 선·후배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정 찬 현(20회)
부회장

재도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위하여

2014년 9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약대 학장의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온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모교의 날 동문 체육대회와 신년교례회, 8회 졸업동문의 졸업50주년 기념회와 28회 졸업동문의 졸업30주년 기념회, 약학대학 표지석 제막식 등에서 동문님들께 인사를 드렸지만, 여러 동문님들을 일일이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문회가 주축이 된 자발적 발전기금 모금이 기폭제가 되어 약학관 준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옛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우수 약학대학으로 도약을 해야 하지만, 우리 약학대학은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일보 학과 평가에서의 좋지 않은 성적과 연구업적 지표의 하락으로 전국 약학대학 내에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본부에서는 약학대학에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 역시 신임학장으로서 중대 약대의 위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의와 회의 끝에 '약학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방안'을 전체 약대교수님의 동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교수, 부교수 승진 기준과 정교수 연구업적 기준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본부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본부에 전임교원 증원과 연구 공간, 연구기자재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최고 수준의 약사와 과학자, 약학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설과 같은 학부 및 대학원 교육 시스템의 개편과 커리큘럼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실습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개국 약국, 제약회사, 보건행정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장학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28회 동문이 장학금으로 1억여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는 단일학부 단일기수에서 모금한 최대 액수로, 약대 장학금 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모범사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현재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전국의 35개 약학대학과의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모교사랑과 격려가 더욱 절실하며, 중대약대의 비상을 위하여 전 동문과 교수, 재학생이 하나가 되어 마음과 힘을 모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약업계의 현실 속에서 약사의 직능과 본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문님께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한상범 드림





약학대학 표지석 제막식 거행

조의환(8회) 삼진제약 회장 기증

새해 벽두 1월 13일 동문회 주관으로 약학대학 표지석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2011년 우리 약학대학 동문들의 발전기금 납부운동이 초석이 되어 낡은 파이퍼홀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동문들의 염원을 담은 신축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약학관이란 명칭대신 통칭 중앙대 102관(R&D관)으로 불리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오류가 늦게나마 바로 잡히는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 이번 행사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타 대학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중앙대 공간설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동문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표지석을 세우는데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마저도 당초 계획했던 크기의 절반정도로 줄였기에 가까스로 성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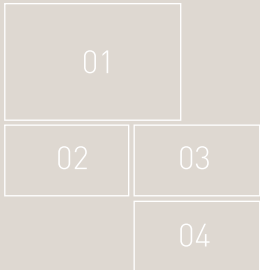
장재인(17회) 동문회장은 “우리가 집을 근사하게 짓고도 정작 명패를 못 달았었는데, 이렇게 표지석 제막식을 진행하게 되어 전체 동문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표지석을 제작해 기부한 조의환(8회) 삼진제약 회장은 “약대가 새 건물이 지어졌어도 무슨 건물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

었다”며 “올해로 졸업한지 50년이 되는데 학교에 무언가 기여하자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뜻깊은 행사에 현직 회장단은 물론 고문단,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를 이끌고 있는 동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동문들은 물론 모교 교수와 명예교수님들까지 한걸음에 달려와 표지석 제막의 당위성과 의미를 나누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상 당장 이름이 약학대학으로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약학대학 동문들의 고향이 생긴 것 같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감회를 밝힌 어느 동문의 말이 오늘의 행사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 01 8월 21일_ 중앙대학교 이용구 총장 면담
- 02 9월 16일_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 03 9월 16일_ 제8차 회장단회의
- 04 9월 21일_ 16회 동기회모임





- 01
- 02
- 03
- 04
- 05

- 01 **9월 26일**_ 2014년 1학기 장학금수여식
- 02 **10월 1일**_ 모교의 날 골프대회
- 03 **10월 12일**_ 모교의 날 체육대회
- 04 **10월 21일**_ 손의동 교수 대한약학회장 당선 축하연
- 05 **11월 5일**_ 초도이사회





- 01 12월 16일_ 제9차 회장단회의 및 송년회
- 02 12월 19일_ 여동문회모임
- 03 12월 21일_ 나사모모임
- 04 1월 13일_ 신년교례회



- 01
- 02
- 04
- 03



손 동 헌(1회) 명예교수

중대창학100주년 및 약학대학창립60주년기념 현판 본교 기증



손동헌(1회) 명예교수 현판 기증식이 지난 9월 24일(수) 오전 11시 30분,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2층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성조 교학부총장과 조윤희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손동헌 명예교수, 장재인 약학대학 동문회장, 한상범 약대학장, 허인회, 염정록 명예교수 및 약학대학 교수들과 동문, 현판을 작업한 서예가 초당 이무호 선생이 참석하였다.

손동헌 명예교수는 중앙대학교 창학 100주년 및 약학대학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현판을 직접 제작하여 본교에 기증하였다. ‘우뚝 선 중앙대학교, 날아오르는 중앙 약대’라는 의미를 담은 ‘용립중앙 비상약대(聳立中央 飛翔藥大)’ 현판은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2층에 설치되었다. 손 교수는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중앙대와 앞으로 더욱 비상하게 될 약학대학을 기대한다는 뜻에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표현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조 교학부총장은 “항상 모교를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60주년을 맞이했던 약학대학이 이번 현판식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비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손동헌 명예교수는 약학대학 1회 동문으로, 약학대학 교수로 36년간 재직했으며 지금까지 약 4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모교사랑에 앞장서 왔다.

손 의 동(22회) 제49대 대한약학회장 당선자

6년제 약사탄생을 동문회사랑으로 멘토링



존경하는 장재인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

먼저 올미년 육십간지의 32번째 청양띠의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저희 동문은 매년 3000명 이상의 회원 신고를 하는 약대중 최대의 동문으로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뿐만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단연 최다의 실질적인 CEO로 활약하고 있으며 많은 공직약사, 단체장 및 정계진출을 이루는 등 단연 질적 양적으로 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은 1953년에 중앙대내에서는 이과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설립되어 2011년에는 서울대와 경쟁을 같이 한 최고의 인재가 6년제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파이퍼홀에서 신축관인 약학관(약학대학 R&D 센터) 이전하여 수업하여 첫 열매가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즉 6년제 첫 약사고시가 곧 발표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동문회는 새로운 인재를 맞이하는 기쁨을 가지고 선배로서 약업계의 선경험자로 잘 멘토링하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산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동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문회의 끈끈한 전통과 막강한 힘으로 대한약학회(이하 약학회) 49대 집행부를 앞으로 제가 2년간 이끌어가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약학회는 1951년 창립되어 그동안의 전임회장님 (한덕룡교수님, 김일혁교수님, 김창종교수님)의 노력으로 쌓은 학술적 전통과 발전을 지속해 왔고, 이를 계승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학회 위상도 제고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는 6년제 약사배출을 하며, 약사회와 2017년 세계약학연맹 서울총회도 준비를 해야 하고, 임상 및 제약학실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약산업을 위한 보건산업정책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회는 학술적으로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학회 비전은 제약산업발전에도 기여하여 우리경제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999년 선프라를 출두로 지금까지 매년 신약을 창출했고, 현재 임상시험 진행의 규모는 10위이고 내수시장규모는 13위 입니다. 세계 50대 제약회사는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대로 투자를 가속한다면 15년후는 21조로 예상되므로 글로벌신약의 대박이 성취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대국에 제약업이 큰 비중으로 일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약학회의 비전을 담은 핵심어귀는 창변득실 (創變得實 CCGO; Creation, Change, Gain, Output)로서 즉 창의적 전략과 개혁적 변화를 통하여 글로벌화와 내실을 이루어 국제적인 학회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성취는 동문님의 적극적인 학회참여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약학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44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일시 2014년 10월 12일(일)

장소 중대부속중학교운동장

종합우승 34회 동기회
 준우승 나사모
 3위 38회 동기회
 최다참가상 38회 동기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44회 모교의 날 골프대회

일시 2014년 10월 1일

장소 88cc

우 승 허 영(16회)
준우승 김현태(20회), 김영후(26회)
3위 최민규(26회)

니어리스트 서코스 : 최두주(25회), 동코스 : 조석현(25회)
롱 게스트 서코스 : 유정사(10회), 동코스 : 이강국(38회)
행운상 임종철(19회)
새싹상 38회 동기회



우승



우리들의 힐링캠프

김승환(29회)
아코러스 단장

약대 합창동아리 Calamus 정기발표회 30주년기념 A-chorus 합동공연

막이 오르다

2014년 11월 16일,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다. 새벽부터 서두른 단원들을 위해 미리 주문해 두었던 100명분의 식사와 간식을 수령하고, 단원들이 맬 나비넥타이, 무대 배치도가 든 파일을 잘 챙겼는지 확인하고는 대방동 여성플라자로 달려갔다.

아트홀 봄에 들어서자 이미 재학생들의 리허설이 한창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나둘씩 모이는 단원들, 상기된 단원들의 얼굴에 설렘과 결기가 보인다. 대기실과 무대 동선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를 한다. 대기실에 파트별로 모여서 각자 악보를 보며 마지막 체크. 줄지어 무대 위에 올라 객석을 본다.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리허설이 끝나고 돌아와 앉은 객석에서 시계를 본다.

드디어 암전되었던 무대의 막이 오르고 재학생들의 1부 첫 곡이 시작된다. 관중의 박수와 환호 속에 2부, 3부가 끝나고 졸업생들의 4부 차례. 첫 곡 '가을 그리고 강물' 부터 시작한 우리의 노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양상블, 남·여 합창' 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을 피날레로 장식하며 모두 끝이 났다. 상기된 얼굴과 떨리는 가슴으로 단원들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먼 곳에서 친구가 오다

지난 봄 부터 시작된 8개월의 긴 여정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머리를 스쳐간다. 매년 재학생들의 공연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 번 저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막연한 바람으로 벚꽃 흐드러진 교정에 다시 모인 것이 4월 어느 일요일. 10여명이 모였다. 반반의 확신으로 우선 무대공연에 뜻이 있고, 시간을 낼 수 있는 동문들을 규합해 보기로 했다.

각 기수별로 나누어 임무를 부여하고, 소통은 카카오톡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나둘 특방에 모이기 시작한 합창반 동문들은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결속하기 시작했다.

아코러스 칼라무스

창포의 학명인 Acorus calamus에서 유래된 것으로, A-chorus는 졸업생, Calamus는 재학생 합창단 명칭





History

| | | | |
|-----------|----------------------|-----------|---------------------|
| 1965 | 6월 창단 / 9월 전국 약대 음악제 | 2001~2013 | 중앙대 약대 새터 공연 |
| 1967~83 | 제2~12회 약학 음악제 | | 중앙대 약대 동아리 연합문화제 참가 |
| 1977 | 전국약사결기대회 찬조 출연 | 2001~2013 | 제16회~28회 정기발표회 |
| 1984 | 제1회 정기발표회 | 2014 | 제29회 정기발표회 겸 정기발표회 |
| 1985~1999 | 제2회~15회 정기발표회 | | 30주년 기념 합동발표회 |



첫 연습일정으로 잡힌 오월 둘째 주 일요일, 이미 특방 대화 인원은 50명을 넘어 100명으로 치달고 있었다. 첫 만남, 30년의 세월을 두고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던 선후배 친구들이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반가움에 부둥켜안고 환한 미소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발표회를 향한 첫 연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81 박요섭이 지휘를, 08 오소연이 반주를 맡기로 했다. 선곡된 첫 곡을 연습하고 나니 어느덧 세 시간이 훌쩍 지나고, 학교 앞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뒤풀이 하는 시간. 학창시절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맥주잔을 부딪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렇게 우리들의 봄밤은 무르익어 갔다.

가슴으로 서로를 품다

75 이승하, 박희용 선배님께서 격려의 방문을 해주시고, 후원금까지 내주셨다. 77 김희섭, 78 한갑현, 최민규, 김유선 선배님이 합류하시고, 후원과 함께 무대공연까지도 약속하신다. 대박이다. 80 조효금, 장민수 선배도 일찌감치 합류하여 왕언니로서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후배들을 감싸 안는다. 81 동기들이 뭉쳤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된다. 무언가 아쉽다. 82 의차가 클라리넷을 분다고 했다. 그래 그거다, 기악합주. 우리 단원 중에 악기 다루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강릉의 현진이가 바이올린을 돌려메고 왔다. 제주도에서 정은이가 클라리넷을 갖고 비행기를 탔다. 경선이가 제 키만 한 첼로를 갖고 왔다. 이미 미경이가 피아노의 달인. 이렇게 앙상블 팀이 결성되고 기악합주 연습에 들어갔다.



서로 다투어 간식거리를 마련하고, 재학생 후배들이 연습에 필요한 모든 곳은 일들을 맡아서 해주었다. 연습이 끝나면 다음 달 연습이 기다려졌다. 만날 때마다 설레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했다.

이젠 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남·여 합창을 추가하고, 조효금 선배가 여성합창을, 구영준이 남성합창 지휘를 맡기로 했다. 이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뉘어 선임된 파트장들이 각 파트를 이끌어 나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길 벌써 일곱 차례.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의 문턱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끝낸 우리들에게 '칼라투스 30주년기념 합동공연'의 날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다.



서로를 힐링하다

놀라움과 감동이었다. 3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친구들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건 아마 우리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내면의 그리움, 그리고 잊고 살았던 타인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었을까. 결과에 상관없이 다같이 느끼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 속에서 메말라져만 가는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각박한 생활 속에 거칠어진 몸과 마음을 씻어내려는 열망이 아니었을까. 그곳 이야말로 단연코 우리들의 해방구가 아니었을까!

이제는 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여럿이 서로의 손을 잡고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합창의 묘미이고 그래서 칼라투스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자 힐링 캠프라는 것을!

덧붙임..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다

더 오래된 시절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학생회가 아닌 학도호국단으로 불리던 엄혹한 시절, 당연히 연습할 곳이 마땅히 주어지지 않던 분위기에서 가까스로 구한 것이 영신관 옆에 있던 대학교회, 연습이 있는 날이면 남자부원들이 청룡호수 저 뒤편에 있던 문리대에서 빌린 풍금을 킁킁대며 나르느라 정작 합창연습을 할 기운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후배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나없이 가난하기도 했던 시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다 비오는 날이면 학교 앞 그린하우스 지하에서 짬뽕국물을 사먹던 그때는 회비로는 연습 때 한 팩씩 나눠 마시던 우유가 유일한 간식일 수밖에 없었는데, 늦게 연습 마치고 돌아서는 허기진 후배들 모습 차마 볼 수 없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얼른 빌린 몇 푼의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 나눠먹어야 직성이 풀리던 선배들이 그 다음 주 용돈 없이 생활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 필요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는 안다. 그들이 있었음에 우리에게 오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다시 이름도 모를 까마득한 후배들에게로 이어지는 바로 그 길이 되리란 것을!



조 의 환(8회) 동기회장



졸업 50주년 기념(1960년도 입학) 행사를 마치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8회 동기회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오색찬란한 단풍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고, 학교 정문은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들어서는 발걸음은 한없이 그리움을 안겨주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약학대학 건물 102관.

약학대학교 R&D센터는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38,406m²(약 11,618평) 규모로 약학대학, 연구시설과 친환경 건물로 설계되어 지어졌으며, 우리 약대 총 동창회에서 모금한 총 38억 정도를 대학본부에 약대 건축을 위한 seed money로 제공함으로써 좋은 약대 건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8회 동기들도 1억 8천 4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모금하여 우리 약대 건물을 짓는데 초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은 이번 졸업 50주년 행사를 우리들의 피와 땀이 모인 이곳 학교에서 치루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옛날의 우리 추억을 간직하였던 파이퍼홀은 리모델링하여 지금은 간호대학이 사용중이고, 108계단을 올라서서 옛날 강의실로 사용중인 도서관은 그대로 모든 학생들의 열의에 찬 그야말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졸업 40주년 행사 때에는 180여명이었던 인원이 이번 행사에는 136명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그동안 우리와 생을 달리했습니다. 친구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보면서, 그래도 우리들은 열심히 살면서 60년대의 그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오늘 같은 태평성대의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아픔의 고통에서 즐거움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약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위의 칭송을 받으며 사회에 봉사를 하는 일꾼으로 살아오게 된 것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통해서 맺어준 친구의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라는 말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정보다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가끔 사랑이란 말이 오고가도 아무 부담없는 친구,
 혼자 울고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는 “힘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당신은 바로 내 친구, 우리
 동기생이라 자부합니다.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우리는 실행위원
 을 선정하여 2014년 3월 29일부터 움직이기 시작
 했습니다. (1차 회의)

(실행준비위원: 김돈기, 김희영, 김연희, 박도규, 박번일, 배영애, 유영수, 임상묵,
 장영자, 조의환)

그리고 5월 24일 2차회의, 6월 28일 3차 회의, 7월 19일 4차 회의, 8월 30일 5
 차 회의, 9월 16일 6차 회의, 10월 15일 7차 회의 끝에 대망의 10월 24일 12시부
 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하여 소형 수첩을 미리 만들어 각자에게 배송해서 그동안의
 친구들 소식을 미리 소통하게 했으니 그것이 많은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국내 136명 국외 13명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
 습니다. 현재 우리 동기생들의 분포를 보면 서울 65명, 경기 27명, 경상남북 16
 명, 충청도 10명, 전라남북 6명, 인천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해외 13명입니다.

우리는 1984년 10월 20일에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1989년 5월에 졸업 25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1995년 2월 28일에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2004년 11월 13일에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그리고 2014년 10월 24일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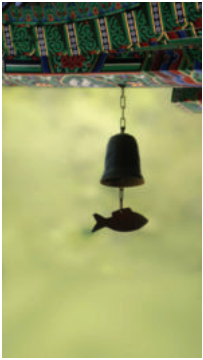
우리가 통지한 136명 중 60% 이상이 회비를 먼저 입금하였고, 그날 행사에 10여
 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돈기 데이몬
 팜 사장의 명사회로 시작한 행사에 미국에서 성기석, 김목자, 우석명(내자 우영신)
 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으며, 한덕용, 김일혁, 손동헌, 이광표 명예교수님과
 한상범 약대 학장님, 장재인 약대 총동문회장님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
 니다. 우리 동기생들에게 이용구 중앙대 총장님 감사패[바이넥스(주) 회장 이백천,
 여약사 시니어 직능클럽 부회장 허근희], 한상범 약대학장 감사패[한국 DBK 회장
 박번일, 오창준의원 원장 오창준], 박진서 중앙대 총동창회장 감사패[정화약국 김
 희영, 명문약국 박도규, 소망가정의원 장영자, Global Children Foundation 이
 사장 김목자], 장재인 약대 총동문회 회장 감사패[천사약국 최재욱(김천), 보명약국
 김종인(대전), 민생약국 최병준(김재), 서광약국 조현인(상주)] 전달식이 있던 후 우
 리 동기생들의 뜻을 모아 약대 총동창회에 5,000,000원 장학기금 전달식이 있었



이 모든 것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통해서 맺어준 친구의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라는 말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밭

조현인(상주 서광약국)

창을 열어

새날이여 어서오세요

손님처럼 맞이한다

설렘임으로

나의 하루가 눈을 뜬다

하루란 나의 밭에

날마다 나는 씨를 뿌린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씨를 뿌린다

고운 말씨

부정적인 말씨

이기적인 말씨를 뿌리기도 한다

내가 매일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마음 밭이

달라진다

기쁨의 씨

감사의 씨

사랑의 씨

아름다운 기도의 씨 뿌려

내 일상의 바구니에

겸손의

그윽한 향기 담으리

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서민 김항석 동문이 기증하여 미국에서 온 김목자, 성기석, 우석명 동기에게 선물한 중국 명나라(14~15세기) 때 정군방에서 제작한 진품명품 ‘칼라막’입니다. 숙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동일품인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친구의 우정의 징표로서 본인이 직접 증정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덕용 명예교수님의 축사와 한상범 약대 학장님 환영사, 김일혁, 손동헌 명예교수님의 건배사, wine과 맥주 외 각종 음료 등 다채로운 부페로 점심을 즐기면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수학한 동문 모임에서 가야금(황이레), 대금(안건용), 피리(여장근), 해금(정다연), 피아노(송지섭), 타악(황인혁)의 연주로 산조조합, Korean music medley, Fly to the sky 등의 국악연주는 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북한 탈북자인 조수아(서울대 의과대학 수료, 통일부 안보 전문 강사로 고향은 평양)씨의 이북 의료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를 돋우었지만, 방송출연시간 때문에 중간에 끊어야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현인 약사의 소녀같은 낭랑한 목소리로 “내 마음의 밭”이라는 자작시 낭송이 있었으며 그 후 논골 색소폰 동호인회 4인조 색소폰 연주에 맞추어 노래자랑을 하며 시간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University Club이 약학대학 건물 102관 11층에 있어서 금요일 오후 약대 강의가 있으니 큰소리로 소음이 전달되면 불편하므로 노래방을 대강 접었는데 조금 서운한 마음 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맑고 맑은 마음이 가득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당신이 머문 자리마다 두고두고 옛말하며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남기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기생 모두 이런 마음 갖고 한번 지나간 세월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에 순응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기들의 인생, 앞날에 좋은 일로 가득하고 몸이 좋지 않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빨리 쾌차해서 웃는 모습 다시 보는 날까지 우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을 기리면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수고해주신 전 동기회장(김성숙, 강창호, 박방홍, 임상묵)과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끝까지 사회를 봐준 김돈기 데이몬팜 사장께 더욱 감사드리고, 많은 고생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불철주야로 뚝신 유영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행준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회장으로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 유지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종 기(18회) 동기회 총무



졸업 40주년 기념 추억 여행 이야기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18회 동기회

매일 매일 반복 되는 일상을 잠시나마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18회(1970년도 입학) 동창회 총무로서 항상 머리 속을 부담스럽게 지배하고 있었던 숙제 중 하나였던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나...? 고민, 고민, 또 고민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제18회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회장단 임기(2년)대로 하면 이미 2013년도 말에 임기가 만료 되었기에, 차기 새 임원진에 미루어 버리면 될 짐(?)을 어찌자고 일년을 덤으로 더, 반강제적으로 밀려서 떠맡아 이 고민, 이 고생을 해야 하나...솔직히 이런 생각도 한 때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지난 2004년도에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나름 성대히 거행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는 가급적 동창생들만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오랜만에 젊은 날을 회상하며 옛추억을 더듬어 보는 '무박 1일 여행'을 가는 것으로 수 차례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소 단촐하게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일자 및 장소 결정 과정, 세부 일정 및 내용 기획과 제반 준비가 결코 쉽지 않았던 추억여행이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여행일자를 9월21일 (일요일)로 결정 후 관련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 되고 있던 중 이게 무슨 날벼락(?). 마침 그 날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무슨 약사 관련 행사와 겹치는 바람에 일부 동창 친구들이 여행에 동참을 못 한다고 하여, 그렇지 않아도 여행 참여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던 차에 걱정이 태산...하는 수 없이 다시 전체





협의를 거쳐서 여행일정을 재조정기로 결정하고, 갑론을박, 결국 새로 결정한 여행일자가 바로 10월 1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날로 여행일자를 다시 결정을 하고 나서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날이 하필 모교 체육대회 날이라니..... 예구머니나, 이 일을 어찌나..... 하는 수 없이 모교 체육대회 주관하는 동문 기수에게는 많이 죄송하지만 이번 년도에는 18기는 본의 아니게(?) 빠지기로 하고, 재조정된 일자를 고수,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행장소 결정..... 여러 시간적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결국 일차 대상지였던 포항은 거리상 왕복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 때문에 결국 배제되고, 대신 철원지역 안보관광으로 최종확정 하고, 가는 길에 학부 때 야유회간 적이 있던 '산정호수'를 중간 경유지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행 참석 인원은 최초 18명 확인 후 몇몇 친구를 더 설득하여 22명, 몇 일 후 25명으로 증가, 여행일자가 다가오며 다시 23명으로 감소, D-day 5일전 최종 22명으로 확정하고 여행지역 관할 담당부대에 안보관광 최종 신청... 이 후 당일 아침에 2명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최종 엔트리 20명'이 출발 직전야 최종 확정되고, 당일 이용할 관광버스는 처음 25인승 버스에서 인원 대비 버스 내부가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 대형으로 조정하려다 다소 비좁더라도 친밀감 있게 다녀 오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결국 25인승 버스로 대절하였습니다.

준비할 사항 하나 더... 그래도 졸업 40주년 기념 추억여행인데 기념품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념품 제작 제안을 하였더니 이에 대해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제안대로 추진기로 하고, 기념품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타올, 만보기, 보온병, 머그컵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Magic Tea bottle + 등산용 목수건'으로 결정, 특별 주문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 기획, 인원파악, 기념품 제작 주문, 식당 등 예약, 소요 비용 파악 후 집행 등을 모두 챙기는데 꼬박 3개월여...막상 해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래도 바쁜 회사 일 처리하며 이것 저것 차질없이 챙기려니 사실 우리 '김총무' 머리에 쥐가 나고, 흰머리 몇 개는 더 난 것 같고...아무튼, 몇 달간 남 모르게 노심초사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2014년 10월 12일, 해피 일요일 아침...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가장 좋은 것 같은 엄청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아침 8시 예정대로 시청 앞에 모두 집합...

전날 대구, 전주 등지에서 미리 상경하여 숙박하게 된 지방 거주 여동창들을 배려하여 시청 앞에서 단체 외박(?)한 여동창생들의 합류, 멀리 포항에서 한걸음에 달려 와 준 권영철 친구, 모든 행사에 항상 앞장 서 주는 인천 팀 합류와 그 외 친구들 모두 개별적으로 착착 도착... 한 가지 당일 아침 참석인원 파악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게 웬 일...버스 대절을 주선 한 전광우 친구가 간밤에 갑작스런 장협착으로 입원 소식...이 걸 어찌나...그 외, 한 여동창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 확인...결국 총 19명이 시청 앞에 집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 시청 앞에서 마침내 산정호수로 출발...

8시 40분경 경유지 구파발에서 파주에 사는 김상각 친구의 추가 탑승으로 총원 20명 성원 확인. 이제부터 산정호수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출발! 대절인 25인승 버스가 다소 비좁은 듯 하였으나, 버스 대절을 알선한 전광우 친구가 예상한 대로 (자기는 결국 참석도 못하고...) 그래도 웅기종기 정다운 모습으로 산정호수로 진짜 고고 씩...

달리는 버스 속에서 김충무가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추억여행 코스와 일정 등을 설명하고, 박계환 회장의 무지 짧은 인사말로 여행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꿈꿨던 전춘이 충무가 온 가족 동원하여 밤새 마련한 김밥과 간식, 그리고 약간의 주(酒)님 영접으로 아침 일찍 준비하고 모이느라 모두가 건너 뚫 아침 식사를 대신 하고, 아울러 우리 전춘이 충무님 여식 결혼(10월25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더 라빌") 경사 소식도 함께 전하고...

이내 버스는 달리고 달려서, 버스 기사님의 너무나도 훌륭한 교통 체증 없는 도로 탐색 능력과 운전 실력으로 당일 마침 산정호수가 있는 명성산의 역새 축제로 인해 교통 생지옥 직전의 산정호수 주 접근로를 용케 피해서, 원래 예상한 대로 오전 11시경에 산정호수에 우리 일행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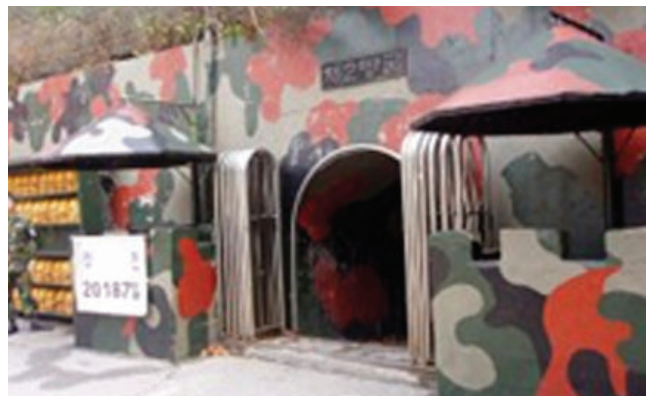
피곤했던 청춘의 학창시절에 와 본 그 곳..세월의 칼바람에 호수 주변의 모습은 예전의 그것과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있음을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들 모습 또한 많이 변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옛추억을 반추하길 1시간 여... 산정호수 주변에 예쁘게 조성된 둘레길을 따라 호수 주변을 일주하고, 기념사진도 찰칵찰칵 한 후 점심이 예약된 "산내들" 식당에 11시 50분경 모두 모였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싱싱한 오징어, 파 듬뿍 썰어 넣어 막 지져낸 푸짐한 파전에 시원한 일동막걸리로 칼칼한 목부터 우선 축이고...산뜻한 산채비빔밥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기 한 시간 여...미리 식당에 맡긴 싱싱한 수박을 찾아 썰고, 김윤순 친구가 자비 서비스한 귀한 무화과를 함께 후식으로 즐기고...

오후 일정을 위해 13시경 5군단 지역 안보관광 안내자를 만나기 위해 12시 50분경 산정호수 내 식당을 출발, 영북면 면사무

소로 이동. 영북면사무소 입구에서 안내자 최중령님을 만나서 오후 안보관광 일정 및 철원지역 관광지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듣고 13시 20 분경 철원지역을 향하여 다시 출발...



오후 2시경, 첫 관광지 '철원 제2땅굴' 도착

현장 초병으로부터 땅굴에 대한 자세한 개요 설명과 관람 안내를 받고 각자 안전모 지급받아 쓴 후 우리 모두는 서늘한 땅굴로 줄줄이 진입하여 그동안 말로만 듣던 '철원 제2땅굴'을 본격적으로 관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인 관람을 위해 잘 가꾸어진 땅굴 속을 걸어 가며 무지막지하게도 화강암 바위 땅 밑으로 거의 3키로를 넘게 남쪽으로 파 들어온 북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도 보고, 땅굴 속 관람로를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과 발파 작업용 다이내마이트 삽입 구멍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뚫려 있다는 사실에서 이 땅굴은 북쪽에서 뚫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재확인도 하고, 땅굴이 뚫리면 벌어질 여러 가지 안보 위험에 대한 겁나는 얘기도 들어 보고...

분단 국가의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상념을 안고 30~40 분여가 흐른 후 땅굴 밖 세상으로 다시 나온 우리 모두들... 아직 한낮 늦더위 여전한 속에 모두들 비지땀 흘리던 차, 누군가의 제안으로 아이스바 하나씩으로 더위를 잠시 식힌 후, 다음 행선지인 철원 평화전망대로 이동하였습니다.

한 40여분을 달려서 도착한 전망대 입구

최신식 모노레일카로 갈아 타고 전망대에 오르니 백마고지, 궁예의 옛 태봉국 자리, 평강고원, 북한지역 선전마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 남북한 GP, GOP 등이 한 눈에 들어오는 역사적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평소 천기조절 능력을 뽐내던 박계환 동창회장의 탁월(?)한 천기조절 능력을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한 덕분인지 이날 날씨가 그야말로 최상급으로 너무 좋아, 평소보다 거의 3~4배 양호한 시계가 확보되어 대략 50키로 이상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행운이 이 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일어 났고 쌍방 수많은 젊은이들의 붉은 피를 흘려야 했던 그 역사적 아픔의 장소를 한 눈에 거의 내려다 보며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의 뜻과 투철한 국가안보 의식을 충분히 고취하고...시간가는 걸 아쉬워하며 다시 내려오는 길, 전망대 앞에서 단체사진 찰칵찰칵...

전망대 입구 위에 붙여 놓은 '철원 전망대' 영문 표기 'Cheorwon' 에, 왜 '철'을 Cheol로 표기하지 않은지에 대해 우리의 호프 포항 권영철 친구의 의문 제기로 건전한 토론이 잠시 이뤄지고... 결국, 철원의 오리지널 발음 상 'r' 발음이 더 '철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철원군청 담당자님이 어렵히 잘 알아서 하셨겠냐고 나름 인정도 하며, 다음 목적지인 월정리역과 철원 노동당사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내 10여분을 달려 도착한 월정리역 도착...

마침 서쪽으로 넘어가는 시월의 짧아진 해를 등지고, 헤아릴 수 없이 엄청 많은 '하루살이' 떼들의 혼돈스런 비상 of the 귀적 사이에서, 거의 사그라져가고 있는 원산가는 길에 멈춰 버린 기관차 잔해 모습에서 지난 세월의 잔인함과 처연함을 함께 느끼며, '철마는 달리고 싶다' 라는 피맺힌 외침의 숙제를 우리 세대에서는 꼭 풀어 줘야 할 텐데도, 그러하지 못할 것 같은 아쉬움 가득 가슴에 담고...

월정리역을 벗어나 철원 노동당사로 이동

세상에나...한 번 들어 가면 죽어서 나오거나 거의 반 죽임을 당해서 나온다는 그 무시 무시한 노동당사는 세월의 무게 앞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콘크리트 뼈대만 앙상히 남아 있는 모습이지만, 왠지 스산한 냉기 속 살기가 여전히 스며있는 듯 오싹한 느낌... 전쟁이 끝난 후 뒷마당 토굴에서 무수한 주검이 발견되었다는 안내에는 아연 실색...이렇게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광활한 철원평야 농경지 중앙부에 이렇듯 무섭고 암울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저 유구무언의 안타까움만



더했습니다.

벌써 시간은 오후 5시 30분경, 가을 절기 한가운데 와 있는 짧은 해는 이제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길지 않은 하루 일정의 끝자락, 저녁식사가 마련된 5군단 직영 '승진 식당'으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지요.

분단된 국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녕, 무심하게도 서서히 잊혀져 가는 동족 상잔의 상흔과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단 현실...어떻게 이 아픔을 딛고 현실을 벗어나 완벽한 통일 조국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 줄 수 있을 지... 가을의 짧은 하루 해가 어느덧 뉘엿 뉘엿하는 시간에 철원지역을 벗어 나오며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 그리고 상념들...

이내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후 6시경 도착한 승진식당

친절하게 한 나절 우리를 안내 해주신 최중령님과 아쉬운 작별, 진정한 마음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내 숯불에 구워지는 푸짐한 국내산 한우 고기로 뽀뽀한 오후 일정 채우느라 이내 시장해진 우리 모두 맛나게 포식...결들인 소주와 맥주 적당히 한 잔씩 섞어서 모두들 카~야...!!! 비빔냉면 과 된장찌개로 갈비 한정식 코스를 이내 마무리하고, 후식으로는 점심때 가져온 수박으로 산뜻 하게 입가심.

어머나...너무나도 가정적인 우리 몇몇 친구들 보시게나...가을 하루 짧은 여행길에서 조차 두고 온 가족들 못잊어 혼자 먹기 미안해서인지, 한우 양념갈비 저렴한 가격에 바리바리 현장 쇼핑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늦은 일요일 귀경길 교통체증을 무지 염려, 저녁 7시경 부라 부라 현장 출발 서둘러 귀경...귀경 버스 속에서는 진지한 토론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주제는 차기 총동문회 회장 선임 추천 건 및 총동창회 기금



납부 건, 차기 제18회 동창회 임원진 선출 건 등에 대해 건설적 대화와 각자의 의견 개진...

총동창회 회장 선임 문제는 그 동안 유력한 피추천인으로 거론된 몇몇 친구들이 모두 추천을 완강히 고사하는 바람에 그 동안 몇 번의 동일 안건에 대해 토론의 장이 있었지만, 이날도 마찬가지... 결론 없는 진지한(?) 토론 뿐...어쩐데요?... 연말까지는 총동문회 회장 선임 추천, 총동문회 발전기금 결정 납부, 제18회 동창회 차기 회장, 총무 선출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고 선임에 대한 결론도 못 내리니...(김총무 개인적으로 경고: 연말 우리 정기모임에서 최종 결정 안 하면 그때는 가만있지 못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길 엄포를 놓고...) 발전기금 납부 건 또한 18회 동창회 위상을 고려, 일정액을 납부하지는 결정만 내리고 결국 관련 안건 모두 다가오는 12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결론 아닌 결론으로 이 날의 토론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쯤 해서, 지난 연초에 개인 시집을 발간 한 김 총무에게 아직 그 시집을 못 받은 한 여동창의 “김총무님, 나도 시집 보내달라”는 부탁(?) 으로 모두가 예기치 못한 한바탕 큰 웃음 잔치...우리 말의 색다른 아이러니를 확인하며...

헤어지기 전에 김총무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기념품 배포하고, 귀경 길에 인천팀 1호선 지하철 타기 위해 회룡역에서 먼저 하차 작별하고, 지방 거주 친구들 야간 KTX 타기 위해 서울역에서 하차하고, 여타 서울 친구들은 시청 앞에 무사히 도착 귀가하고, 이동윤 친구와 강성원 친구들은 고속터미널로 가야 되어 버스를 터미널로 우회해 줄 것을 요청, 배웅하고 나니 당일 일정의 대원들이 아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녁 9시 50분경 시청 앞...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18회 동창회 졸업 40주년 기념 추억

여행은 이렇듯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멋있고, 맛있고, 아쉬운 마음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친구들이 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 올 수 있어서 여행을 준비한 임원진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다행이고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일 여행에 참여 한 강성원, 강응모, 권영철, 김상각, 김윤순, 김종기, 남애숙, 박계환, 박광숙, 여운숙, 오윤숙, 이동윤, 이성배, 이종학, 이훈복, 임종진, 임태영, 조종형, 전춘이, 최정순 (이상 20명) 등의 모든 친구들에게 무한의 감사를 드리고, 여행경비 총당을 위해 때 맞추어 선뜻 찬조금을 내어 주신 친구들 (김기명, 박계환, 이종학, 이훈복, 전춘이)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혹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절대 미안해 하지 마시고 다음 정기모임 때 반갑게 만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졸업 40주년 추억여행’을 기획에서 실행할 때까지 제반사항에 대해 내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계환 회장과 전춘이 총무께 특별히 감사 드리고, 버스, 식사, 관광안내 등을 솔선 알선하고도 예기치 못한 급환으로 참석 못한 전광우 친구에게도 다시 감사를 보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18회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친구들 모두 가내 무고하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 해 룡(28회) 동기회장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마치며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28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행사를 마치며 이제 가슴속 깊이 묻혀질 잊지 못할 2014년도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중앙대 약대 80학번에게는 커다란 획을 그은 한 해였습니다.

저희 중앙대 약대 80학번은 참 사연이 많은 학번입니다. 예비고사, 본고사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온 마지막 학번이고, 80년도 대학 일학년 때는 민주화의 봄을 맞이한 각종 민주화 시위로 5월부터 8월까지 휴교령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84년 졸업을 하고 각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격변하는 80년대, 90년대를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왔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시작되었던 약학도의 삶이 어언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가 된 저희가 졸업 30주년 행사를 했다는 것이 감개무량 할 뿐입니다.

올 2014년 신년회 동기모임에서 우리 80학번이 모교약대에서 나름대로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뜻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토의하다가 모교의 발전과 훌륭한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모금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모으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등을 순회하면서 동기들의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동기들도 소중한 뜻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 동기가 애초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큰 장학금을 모금하게 되었고, 이 장학금을 졸업



30주년 행사에서 장학기금으로 전달하게 됨은 저희 동기의 뜨거운 모교애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서양말이 생각나는데요, 저희도 어느덧 사회의 중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중책을 맡고 이제 그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문 대학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졸업생들의 끊임없는 모교사랑이 명문대학을 만들어 냅니다. 저희와 같이 졸업하여 국가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모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일억 일천 만원에 가까운 장학기금을 모교에 전달하게 되었음은 우리 동기 모두의 쾌거입니다.

저희 28회가 세계적인 명문 약학대학으로 가는 길목에 조그마한 등불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희 선배님의 뜨거운 모교사랑과 후배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앞길을 현히 밝혀 주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교발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국적은 변해도 학적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우리 모교 중앙약대가 세계적인 명문약대가 되는 데는 졸업생의 모교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장님, 학장님을 비롯한 학교재단에서는 좀더 발전가능성 있는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여 최고의 졸업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교약대의 위상이 세계적인 명문약대로 인정될 때 저희는 모교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학기금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선순환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의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 주신 모교에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신년회 동기모임에서
우리 80학번이 모교약대에서 나름대로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뜻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토의하다가 모교의 발전과
훌륭한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모금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모으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종 각(13회) 동기회 총무



13회 동기 부부 6차 해외여행 스페인을 다녀오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13회 동기회

우리 13회 동기부부 21명은 작년 10월달에 9박10일간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 왔다.

TV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로 유명한 스페인을 칠순나이 전에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다녀 오자는 의견을 모아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돌아왔다.

우리 동기중 유한양행 부사장으로 정년을 한 이충식은 여행전문가이다. 그 친구가 여러 여행사에 우리가 원하는 코스로 견적을 받아 왔다.

다양하고 여행비가 저렴한 KRT여행사와 좋은 관광지를 택하여 단독계약으로 다녀왔다.

2년 전에는 터키여행, 4년 전에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태리, 오스트리아를 다녀 왔는데, 장거리여행으로 비행시간이 13시간정도나 되어서 고생이 되었나 보다.

대부분 친구들이 앞으로는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잠정적 합의를 보았다.

대서양과 지중해에 접한 리베리아반도의 스페인은 면적이 우리나라의 5배이며 인구는 5,000만명으로 광활한 땅위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콜크나무가 평화롭고 부럽기만 하였다.

스페인인 국민의 96%가 카톨릭신자로서 가는 곳마다 카톨릭문화 성지와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성모 발현지 파티마 대성당

첫날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아침 일찍 도착하여 조식후 포르투갈로 향하여 3명의 어린 목동 앞에 성모마리아가 나타나 죄의 회개와 기도를 권하였다는 유래 때문에 순례지로서 알려지게된 파티마성지, 성모마리아의 발현으로 봉헌된 파티마 대성당을 보았다.

전세계 가톨릭신자들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참배하고픈 곳을 보고온 소중한 관광이었다.





다음날 유럽의 최서단 땅끝마을 '까보다로까'로 이동하여 우리 일행 21명이 해안절벽에 올라가 대서양을 바로보며 사진촬영을 하고 5시간 이동을 하여 오페라 카르멘의 무대 플라밍고의 본고장에서 플라밍고를 관람하였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이며 콜롬버스의 묘가 있는 유럽의 베드로성당, 바오로성당에 이어 3위 성당인 세비아 대성당을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이슬람 왕국의 수도였던 '코르도바'로 이동하여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한 유대인의 거리, 꽃길에 흰색 미로에 아기자기하게 화분으로 장식되어 있어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다음날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그라나다'로 이동하여 천국의 정원이라는 왕의 여름별장인 '헤네랄리페정원'과 '알함브라궁전'을 보았다.

바르셀로나의 몬세라트와 가우디의 성가족성당

다음날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로 이동했다. 가우디에게 영감을 준 '톱으로 자른산'이란 뜻을 지닌 '몬세라트' 기암절벽 높이가 1,235m의 산으로 갔다.

11세기부터 세워진 베네딕트회 수도원이 산중턱에 세워져 있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파괴되어 19세기에 재건한 건물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산의 기암절벽 우뚝 솟은 모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성가족 성당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감독을 맡아 1882년 공사를 시작해 1926년 죽을 때까지 일부만을 완성하였다.

예수탄생과 수난, 영광 등을 주제로 한다. 총 12개의 탑이 세워졌는데 100년되는 1982년에 4개의 탑과 지하예배당만 완성되었다. 지금도 계속 공사중이며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라니 우리나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건축물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배를 보는 날마다 평균 2억 6,000만원 정도의 헌금이 걷혀 이 헌금만 돈으로도 충분히 성당을 건축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아라곤 왕국의 수도로 번영했던 '사라고사'로 이동하여 고야의 작품이 전시된 필라르 성모 대성당과 필라르 광장을 보고, 이어서 서기 589년 종교회의에서 카톨릭을 국교로 정해 찬란한 문화를 지녔던 스페인반도의 '톨레도'로 가서 스페인 카톨릭의 총본산인 톨레도 대성당을 보고 마드리드로 출발하였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여 안녕!

우리 일행은 스페인, 포르투갈의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처음 도착지인 서기 1561년에 '톨레도'에서 수도를 옮겨 450여년의 역사를 지닌 '마드리드'를 살펴 보았다.

마드리드 최대의 변화가인 '그란비아' 거리, 돈키호테의 동상이 있는 스페인 광장, 펠리페 3세의 기마상이 있는 마요르 광장을 보면서 스페인 문화에 감동을 받았다.

특히 스페인 회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 왕가의 미술품을 소장하는 왕실전용 화랑이었으나 후에 국립 프라도 미술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다.

약 8천여점의 미술품이 소장되었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미술관이라 한다.

우리 13회 일행은 부득이 사정이 있는 친구들이 동참을 못하여 아쉽고 서운했으나 다음 7차 해외 여행때는 전원 참석하기를 기약하면서 9박 10일간의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스페인 여행시 박동규 회장을 비롯하여 21명 한분 한분이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원 주 희(19회)
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well-dying

웰다잉을 돕는 샘물호스피스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소생 불가능한 말기 증상, 특히 말기 암과 같은 질병으로 치료 불가능이라는 현실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영적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말기 환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해 7만 명 이상이 말기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망자 3명 중 1명 정도가 말기 암으로 죽음을 맞는 비율이 됩니다. 이처럼 말기 환우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비해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손길들은 아직 미흡합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말기 환우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형편이지만, 참으로 인간다운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호스피스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말기 환우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샘물호스피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잘 태어나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웰빙(well-being)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잘 유지하는 상태에서 후회없이 의미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 다잉(well-dying)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태어나서 잘 살아도 생의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떠나지 못한다면 그 삶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가 출발을 잘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삶을 비행기 여행에 비유한다면 호스피스 활동은 생의 마지막 착륙시기를 돕는 일입니다. 비행기 여행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비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착륙하는 시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비행해 온 모든 것을 결산하는 시간이고 다음 여행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시간까지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가며 전인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말기 환우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환우님들은 전인적(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이 통증입니다.

말기 암환우님들의 경우 암세포가 뼈, 신경, 다른 장기를 침범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은 환우님 혼자서 또는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우님과 가족, 호스피스 전문팀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샘물호스피스 전경



샘물호스피스 증축현장



네팔 샘물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화학요법 등의 치료 후유증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암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에 의해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통증은 환우님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도움을 받으면 90% 이상 통증이 조절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잘 유지하며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샘물호스피스가 지난 21년 동안 7,000여명의 말기 암 등의 말기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님들을 섬기면서 경험

한 바에 의하면 통증을 비롯하여 환우님과 가족들의 모든 고통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이거나 집에서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져 있던 환우님들이 샘물호스피스병원에 입원하는 날부터 통증이 조절되고 편히 잠을 주무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샘물호스피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 51번길 112-25
Tel. 031-329-2988 Fax. 031-329-2910 E-mail : hospice@chol.com

원 주 희

경력

- 1975.02.28-1977.06.30 R.O.T.C. 13기 육군 복무(중위 만기제대)
- 1977.06.30-1986.12.31 약계 활동
- 1987.01.01-1989.09.02 서울영동교회 교역자 시무
- 1989.09.03-1993.10.31 한영교회 교역자 시무
- 1990.11.24-1993.10.31 영세민 자선 [샘물약국] 운영
- 1992.10.13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 안수
- 1993.06.10-현재 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 국내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시설 [샘물호스피스] 운영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7,000여명 교육
 - 네팔, 브라질 등 국내외 호스피스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2007.11.05-2010.11.30 말기 에이즈 요양 · 호스피스 시설 운영
- 2007.10.03-현재 에이즈 봉사 치과 운영
- 1993.11.26-현재 암, 에이즈 말기 환우 7,000여명 임종 섬김

수상

-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제4회 성산 장기려상 수상(2009.12.17. 장기려선생기념사업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자랑스러운 동문상(2010.11.11.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총동문회)
- 제22회 일가상 수상(2012.09.01 김용기장로기념사업회 일가재단)
- 제2회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동국대상 수상(2014.11.02. 대한약사회)
- 2014 자랑스런 중앙인상 수상(2014.12.09. 중앙대학교총동문회)



저서

- 죽음, 알면 이긴다(도서출판 샘물, 2003)
-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생명의말씀사, 2012)



다수의 수상경력



몇 년 전 원자력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고 통증으로 24시간 아파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 드리고 있지만 저렇게 아파하다가 떠나게 되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면서 제발 통증을 해결해 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셨습니다. 입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이 조절되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 만에 저런 모습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은 환우님 혼자서 또는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우님과 가족, 호스피스 전문팀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샘물호스피스선교회(이사장 : 손봉호 박사 / 회장 : 원주희 목사)는 1993년 6월 10일부터 2015년 1월 현재까지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말기 환우님들을 위한 호스피스 전문 병원(현재 60병상 규모의 샘물호스피스병원 운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을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올해로 22년째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4년 12월말까지 7,004명의 환우님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 금년 6월말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100병상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 암환우님에게 국한시키고 있지만 본회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모든 질환의 말기환우님들(말기 루게릭, 파킨슨, 에이즈, 뇌경색, 간경화, 심장 및 신장 질환, 노인성 질환 등)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호스피스 활동에 많이 동참하면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통증 조절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과 호스피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마약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능만 호스피스 영역의 필수인력으로 인정하고 의료보험수가에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사 직능도 필수인력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대약대 동문들께서 호스피스 영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간의 존엄성이 잘 유지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복된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한 순례다’

나를 찾아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나는 누구일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진정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살아 간다는 것’에 대한 나와의 담론(談論)과 존재감에 대한 신뢰가 절실히 필요했다. 곧, 회사에 사표를 냈다.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의 ‘자아’에 대한 좌표를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았다. 그 좌표를 찾아 나서야 했다.

김진섭(23회)



저 길 끝 어딘가에 있을 나를 찾아

배낭을 꾸려 홀연히 떠났다.

그냥 철저히 홀로되어 내 안 어디엔가 숨어있는 진정한 나를 꺼내어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었다. ‘Camino de Santiago’.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의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로 향하는 약 830km를 걷는 순례길이다(참고로 난 종교가 없다). 집 나가는 날과 들어오는 날만 정해 놓고 나만의 공간으로 바람처럼 훌쩍 떠난 것이다. 미움도 배반도 시기와 질투도 그리고 탐욕의 악취도 없는, 그저 용서와 관용과 여유와 사랑의 바람만이 불어 오는 곳일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만이 있었다. 진정 나는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프랑스 남부의 스페인 국경 근처 마을 생장피데포르(Saint Jean Pied de Port)에 도착,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순례길의 절차를 밟았다. 순례자증서(Credential)를 발급 받아 순례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 증서로 내가 순례자임을 증명하고 순례길 곳곳에 있는 순례자 숙소(알베르계; Albergue)에 묵게 되는 것이다. 출발 준비를 마치고 비노(Vino; 와인) 한 잔으로 나에게 스스로 축배를 권했다. 마음이 너무 평온하다.

이 길의 끝에 무사히 설 수 있도록 하소서

순례길의 첫날, 아침에 눈을 뜨니 내 옆에서 동침(?)하던 순례자들은 이미 떠난 뒤였다. 서둘러 배낭을 메고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밖으로 나왔다. 밖은 아직도 어둡고 새벽의 냉기가 온 몸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 당긴다.

이제 시작이다. 오직 나의 다리를 믿고 걷는 것뿐이다. 나의 영혼은 덩달아 노래를 불러 줄 것이다. 순례길의 첫 관문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서서히 날이 밝아 오면서 피레네 산맥의 정경이 눈앞에 들어온다. 다행히 투명한 햇살이 보기 좋은 9월말이었기에 내 앞의 모든 것이 가슴 벅찰 정도로 아름답다. 27킬로를 걸어 넘어야 내가 설 숙소가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산맥은 넘어야 한다. 앞서 가는 순례자들이 한 둘 시야에 들어온다. 서서히 오르막이 시작될 조짐이더니 곧 숨이 턱까지 차 오른다. 배낭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지만, 발걸음은 예상외로 가볍기만 하다. 오히려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스멀거리며 치고 올라



첫 날, 피레네를 넘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산은 넘어야 한다.

오는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 같은 것이 노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걸 뭘까? 이 느낌이 도대체 뭘까?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른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대지로 꽃히는 한 줄기 햇살, 이 아름다운 지구별의 노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힘에 부치면 잠시 쉬면서 내 주위의 모든 것들과 마주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꽃을 보면 그 순간 나는 아주 작은 꽃이 되었다.

행복한 산, 또 다시 그리워질 산맥을 넘었다.

서서히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알베르게가 눈에 들어온다. 줄을 서서 숙소의 침대 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순례자들의 얼굴에는 오로지 행복만이 가득하다. 짐을 풀고 길 위에서 만난 순례자 몇 명과 같이 비노 한 잔으로 서로를 축하해 주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산을 넘은 나에게 고마웠다. 허파파리와 심장의 팔딱거림은 내 존재감의 암시였고 그 암시는 곧 내 영혼에 대한 신뢰였다. 대자연의 순수함을 마주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나마 부끄러움 씻어주었다. 순례길의 첫날 밤은 수 많은 별빛이 산 중의 어느 한 점(點)에 쏟아져 내리는 듯한 축복의 세례로 그렇게 사위어 가고 있었다.

이번 순례길 여정은 목적지 산티아고까지 대략 30~34일 정도를 예상했다. 그리고 나머지 여분의 날들은 여백으로 남겨 놓았다. 애당초 순례길이란 정해놓고 걷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걷다가 마음이 동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다. 알베르게에서의 아침은 대략 새벽 5시경부터 시작된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한 돌씩 잠에서 깨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산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커피와 토스트 몇 조각으로 간단히 요기를 한 후 곧 다시 걷기 시작한다.

길이 나를 길로 만든다

이런 아침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의 적막하기 조차한 길을 홀로 걸을 때, 어느 순간 저 멀리 산자락 한 곳에 투명한 금빛 햇살이 얹혀질 즈음이면 내 몸 안의 핏줄도 서서히 자연스럽게 팽창되고, 곧 가슴속이 뜨거워 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순례길 중 이 때가 최고로 감정이 고조되어 깊은 희열을 경험할 때이다. 어느 곳에서나 태양의 모습은 같지만 그 햇살의 맛과 냄새는 분명 다르다. 우주와 지구별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의 판타지~! 그 안에 또 다시 용서와 화해의 겸허함이 녹아 든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길과 끝없이 이어지는 밀밭과 포도밭을 걷고, 때론 화살처럼 날카롭게 살갱에 박혀 버리는 한낮의 땀 속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앞을 가로막는 자그마한 언덕이 나타난다.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가는 그 곳에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자연과 한 몸이 된다. 나는 너무나 작은 미물(微物), 내 안에 언제 욕심이 있었던가? 내 안에 언제 그리도 어리석고 쓸데없는 욕심의 씨앗을 틔웠던가? 그 순간 내 안에는 진정 사랑과 관용의 샘만이 말갱게 솟아 오른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다시 흐르는 눈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과 하늘과 그리고 팔랑대며 웃고 있는 꽃들에게서 사랑과 지혜의 영감과 편안한 위안을 얻었을까? 또 다시 부끄럽다.

양쪽 새끼 발가락에 큼직한 물집이 깊이 잡히더니 드디어 발톱까지 검은색으로 서서히 변하며 사망하기 직전이다. 한 발짝 땀 때마다 통증이 오지만 내 앞에 길이 있고 또한 길이 걸으라 하니 그



길은 내 안에도 사랑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

저 가슴을 열고 주어지는 대로 걸을 뿐이다. 아무 말 없이 팔을 벌려 나를 안아준다. 이 순간 육신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나의 머리 속은 티끌 하나 없는 하얀색으로 채워진다. 다시 고맙다. 8일째, 제법 큰 도시인 로그로노(Loglono)를 지나면서부터 길 양 옆으로 온통 포도밭이다. 비노의 땅 스페인에서 가장 활발한 와인 산지에 들어섰다. 끝없이 이어지는 포도밭, 조물주는 어찌 이리도 놀라운 열매를 지구별에 내리셨을까?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된다. 각각의 얼굴은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다.

순례길 10일째, 순례길 중 가장 소중한 기억중의 하나로 남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그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제쳐두고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모두 같다. 곧 그것은 그들 자신의 참 존재의 확인이었다. 무욕(無慾)의 편안함과 감동이었다. 무거운 짐을 메고 매일 20~30킬로 또는 그 이상을 한달 이상 걷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다. 더욱이 지친 몸을 쉬어가는 알베르게는 여러 사람들이 거쳐 가는 곳인지라 공동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하나 하나에는 똑같은 느낌의 감동으로 그득함을 보게 된다.

산토 도밍고의 알베르게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10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모여 저녁을 직접 만들어 먹기로 했다. 스파게티와 빵 정도의 단순한 식단이었지만 우리에게서는 훌륭한 비노가 곁들여진 멋들어진 성찬이었다. 연령대도 10대에서 60대까지의 세대들이 격의 없이 모여 다 같이 만든 한끼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풍성한 식탁은 아니었으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한 표정들, 그것은 또 다시 진솔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과 감사의 언어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며 원하고 살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부질없는 욕심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걷기 시작하지 열흘이 넘어서면서 나의 몸도 완전히 적응이 된 것 같다. 숙소에서의 불편함, 예를 들면 남녀가 같은 방에서 또는 같은 침대 위 아래에서 잠을 자다 보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종종 내 침대의 2층에 거구의 여성이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양보의 미덕도 발휘한다. 좁은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가능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대충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내 집이 아닌 다음에야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려움도 감내를 해야 하는 것이 순례길의 긴 여정을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다.

잠을 잘 때에도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 다름아닌 코고는 소리 때문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는 코골이 소리는 순례자들의 피부색만큼이나 참으로 다양도 하다. 그 소리들이 같이 어울려 장엄한 합주곡을 만들어 낼 때는 오금이 저리기도 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끊기면서 잠시 숨이 정지될 때는 내 숨도 따라 정지되는 고통도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되고, 어찌다 스노링(snoring) 공연이 없는 밤이면 오히려 좀 허전한 느낌조차 있으니 이 정도면 진정 제대로 된 순례자의 모습이 아닌가?

같이시여 나를 안으소서

15일째, 오늘도 여느 날처럼 혼자 걷는다. 이곳 순례길을 찾는 사람들 거의가 혼자 온 듯하고,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마음이 맞고 서로 암묵적 동의를 이루어지면



바람과 그 바람의 방향으로 흔들려 주는 꽃들
살은 곧 용서와 순응의 길이다.

하루 이틀 정도 같이 걷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순례길은 홀로 걷는 모습이 좋다. 그래야 좀 더 자유롭게 내 안의 나를 수시로 꺼내어 얘기를 하며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벨트를 수시로 풀어야 할만큼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 줄어든 체중만큼 영혼의 자유와 내 실존에 대한 고민으로 대체 되었다면 손해 볼 일은 아니었다. 길의 끝이 가물거리 잘 보이지 않을 때, 때론 주위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숨쉬기조차 부담스러울 정도가 될 때는 내 몸의 오감 센서를 모두 열어놓고 볼륨을 최대한 높인다.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기관의 센서가 더욱 예민해져 음악처럼 흐르는 가벼운 바람소리에도 내 안의 나는 감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흐느적거리는 육신의 고단함이 오히려 영혼을 가볍게 하여 감격은 새털처럼 훑날린다.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영과 육은 자연의 그 모든 미세한 움직임에 동화되어 나는 이미 내가 아니다. 물아일여(物我一如)~!

왼쪽 발목이 좀 이상하다. 시큰거리는 느낌이 있더니 다음날 아침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통증이 느껴진다. 배낭을 내려 놓으면 괜찮다가 깊어지면 발목에 무리가 온다. 그래도 어쩔라, 저 길이 날 부르는데 내디렸으니 가야지. 가만히 보니 발목이 약간 부어 올랐다. 준비해간 발목 보호대를 하고 진통제 한 알을 정성스레 바치니 좀 걸을만 하다. 앞으로 걸을 길이 멀기만 한데 발목님이 말썽을 부리면 안 될 일이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17일째, 라디고스(Ladigos)라는 작은 마을에 짐을 풀었다. 그날 28킬로 정도를 걸었는데 발목이 말썽을 부려 더 이상은 힘 들것 같아서 그 곳에 묵었다. 그런데 독일에서 온 룯스와 미샤엘도 이곳 알베르게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닌가? 룯스와 미샤엘을 처음 만난 곳은 걷기 11일째 되는 날 오후, 아주 작은 마을 토산토스(Tosantos)의 허름한 알베르게에서였다. 우연히 같은 곳에 묵게 되었고 오후 시간 앞뜰 정원에서 비노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날 미샤엘이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의 넘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하면서 또 다시 눈물을 그렁거렸다. "미샤엘, 나도 그랬다우.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요. 당신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구요"라고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그 후 수시로 길에서 조우하거나 아니면 같은 알베르게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곤 했다. 룯스는 50대 후반, 미샤엘은 60초반으로 두 사람 모두 심장에 문제가 생겨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곳을 각자 홀로 걷다가 우연히 만나 서로 친하게 되었다. 같이 걸으며 서로 살아 온 삶의 뒷면을 열어 봤을 테고 격려와 위로도 주고 받았을 테지.

라디고스에서 묵는 날 저녁, 미샤엘이 뒤에서 나를 살짝 안으며 오늘 저녁에 나를 초대하고 싶다고 한다. 룯스가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었으니 같이 즐기자는 것이다. 너무 고맙다. 비노 한 병(한 병 이래야 2~3유로 정도다)을 사 들고 같이 합석을 했다. 순례길을 경험하며 느꼈던 생각들을 편안하게 열어 놓으며 밤 늦도록 비노에 취하고 젖으며 즐거워했다. 이후로도 룯스와 미샤엘은 길 위에서 또는 같은 알베르게에서 만나고 또 헤어지곤 했는데, 룯스와는 결국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라디고스에서 묵는 날 저녁, 미샤엘이 뒤에서 나를 살짝 안으며 오늘 저녁에 나를 초대하고 싶다고 한다. 룯스가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었으니 같이 즐기자는 것이다. 너무 고맙다. 비노 한 병(한 병 이래야 2~3유로 정도다)을 사 들고 같이 합석을 했다. 순례길을 경험하며 느꼈던 생각들을 편안하게 열어 놓으며 밤 늦도록 비노에 취하고 젖으며 즐거워했다.

이후로도 룯스와 미샤엘은 길 위에서 또는 같은 알베르게에서 만나고 또 헤어지곤 했는데, 룯스와는 결국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행복의 끝이 아니길

20일째, 끝이 보이지 않는 메세타(Meseta, 평원), 하늘과 맞닿은 저 끝은 아득하기만 하다. 내 옆을 지나치는 작은 나무 한 그루조차도 고마운, 그런 평야를 지난다. 그렇지만 고독이나 외로움이란 없다. 그저 대지를 간질이는 가벼운 바람과의 대화만이 있을 뿐이다.

이 넓고 광활한 대지에서 못 생명들과 같이 숨쉬고 있음에 그저 행복할 뿐이다. 외지고 작은 마을에 홀연히 나타난 허름한 선술집 같은 바(bar), 손님은 나 혼자다. 비노 한잔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먹먹해진다. 그 짧은 순간 순간이 행복으로 넘치고 고맙다. 도대체 '산다는 행위'는 무엇인가? 정답은 항상 안개 낀 숲 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그 안의 숲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하루가 접혀질 때 쫓으면 몸은 무겁고 버겁다. 그러나 햇살과 바람이 녹아 든 비노 한잔으로, 작고 가난하지만 또 다시 깊은 행복의 늪에 빠져든다. 진정 이렇게 여분의 삶을 터득하는 것인가?

23일째, 비야단고스(Villadangos)에서 아스토르가(Astorga)까지 29.3킬로를 걸었다. 특별히 이 구간의 길을 걷는 내내 가슴속의 울렁거림을 참기 힘들었다. 시골의 내 고향과도 같은 몇 곳의 아늑한 작은 마을을 지나 이어진 야트막한 동산과 그 옆에 하늘거리는 꽃 무리들, 그 꽃 옆에 짐을 모두 내려놓고 잠시 누워 올려다 보는 투명한 하늘과 구름, 아무도 없는 낯선 산중의 길에서의 오싹함과 행복함과의 오묘한 믹스. 대체 내가 이런 곳에 놓여져 혼자 걷고 있다는 사실이 진정 믿겨지지 않는 순간, 나는 다시 백색의 무념상태가 되기도 했다. 그날 목계 된 아스토르가, 이 작은 도시가 내게 주었던 울림은 아직도 내 눈 앞에 생생하게 그림다. 길 위에는 낙엽이 구르고 있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자~♫).

낮은 자의
소망을 보소서



철타를 향해 올려진 염원과
사랑의 돌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곳을
적셨을까?

25일째, 몇 개의 마을을 거쳐 산 오름이 시작된다. 라바날(Rabanal)에서 엘 아세보(El Acebo)로 향하는 길은 계속 오름의 여정이다. 역시 바람도 동행해 준다. 산길 저만큼 안개 속에 희미하게 다가오는 나무 십자가.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십자가일지라도 그 성스러운 경외감은 더욱 크고 깊다. 그런 길을 홀로 설레설레 오르다 보면 커다란 철타 십자가가 보이고 작은 돌들이 그 십자가를 사방으로 에워싸 작은 돌산을 이룬다. 무엇인가? 다가서 보니 순례자들이 정성스레 놓고 간 돌들이다. 순례길을 떠나기 전 집에서 작은 돌을 가지고 와 이곳에 얹어 놓는다. 그 돌 안에는 순례자들의 수많은 염원과 소망과 아픔이 배어 있다. 나는 미처 돌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위에서 괜찮은 돌을 주워 가져간 가위로 몇 자 각인을 하여 조심스레 올려 놓았다.

‘간구 하옵건데, 낮은 자의 아픔을 보시옵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꽃 무리들과 붉은 나무 열매들, 그 길을 따라 내리막이다. 그냥 자동으로 왼발과 오른발이 교대로 앞을 내디딜 때면 그 속에 나는 없다. 오감의 센서가 또 다시 열리고 이 지구별의 경쾌한 노래가 몸 안으로 빨리 들어온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또 미안하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동네. 구릉 사이에 웅기종기 자리하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시야에 잡히지 않는다. 바로 마음을 정한다.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리라. 엘 아세보라는 작은 산중턱 마을. 알베르게에 짐을 내려 놓고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본다. 역시 목길 잘했다. 27일째 아침, 비야프랑카 델 비에르소(Villafranca del Bierzo)에서 아침 일찍 출발, 알베르게를 나서는데 룯스를 만났다. 내가 묵은 알베르게와 가까운 곳에서 묵었는데 미샤엘은 먼저 떠났다고 한다. 짐작하건대, 미샤엘은 아마도 자기만의 길을 더 걷고 싶었을 것이다. 피레네를 넘을 때 끊임없이 흐르던 눈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룯스와 같이 걷기 시작하는데 비가 내린다. 작은 비로 시작하더니 이내 쏟아진다. 하는 수 없이 배낭까지 덮는 판초우의를 꺼내 입고 걷는데 이런 비는 처음이다. 방법이 없다. ‘주시면 주

시는 대로 감사히 받자입니다'. 길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고맙지 비바람이 무슨 대수일까? 서서히 몸이 젖어온다. 신발 속으로도 빗물이 차기 시작이다. 안되겠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목을 곳을 잡아야겠다. 중간에 룯스와는 헤어지면서 다시 홀로 걷다가 한 알베르에게 짐을 내려 놓았다. 그런데 한참 후 내가 묵는 알베르에게 룯스가 또 들어온다. '룯스, 당신 왜이랴?'

산티아고여 눈물을 거두시라



산티아고 대성당에 닿았다.
무엇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는가?

순례길 첫 발을 옮긴지 30일째에 접어든다. 걷기 초반에 벅차 오르던 뜨거운 감정은 대자연에 녹아 들어 이제는 나는 없고 순수한 자연만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루를 걷고 또 걷는다. 나의 두 다리가 교대로 걸어만 주면 내 주위의 자연이 다 알아서 나를 인도해 준다. 하늘과 대지 사이에는 조물주의 뜻이 담겨 있음을 오늘에서야 다시금 분명히 인지했다. 어느 곳으로 눈의 각도를 놓아도 모든 그림은 경이롭기만 하다. 감성도 이성도 그저 그 기능을 놓아 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렇게 마지막 점을 향해 오늘도 감사히 걷는 것뿐이다. 발목도 이제는 불평을 하지 않는다.

34일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뒤돌아 보면 아득한 것 같기도 하다. 길이 있었고 내 육신과 영혼이 같이 움직여 그 길을 걸었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산티아고 도착 하루 전의 알베르에게 묵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굳이 의식적으로 만들어 낼 일은 아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될 일이다. 길 위에서 많이도 행복했다. 상대 없이도 독백처럼 수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특히 룯스와는 어인 일인지 우연히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 그와의 인연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졌다.

35일째, 드디어 산티아고(Santiago de Compostela)에 발을 디뎠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데 가슴이 텅 빈 듯한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성당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지나온 길과 그 길 위에서 만났던 모든 것(하늘, 바람, 비, 햇살, 꽃, 마을, 사람..)이 순식간에 내 앞을 스친다. 여기까지다. 더 무엇을 원하는가?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갑자기 울컥하며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에게 고맙다. 그리고 나를 안아준 모든 것들에 고맙다. 그날 밤 늦도록 비노로 통음하며 비 내리는 산티아고를 배회했다.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 욕심인가? '내 안의 나'는 진정 없는 것인가? 다시 결정했다. 까미노(Camino)의 끝까지, 피스텔라(Fisterra)까지 더 걷자. 진정 그곳에 또 다른 산티아고가, 그리고 내가 있을 것 같았다. 산티아고에 묵는 이틀간 내내 비가 내렸다.

또 다른 산티아고를 찾아

37일째, 'Camino de Fisterra'. 산티아고를 떠났다. 떠나는 날도 비가 내린다. 어서 떠나자. 그리울 때 떠나야 다시 그렇다. 아침 늦은 걸음으로 피스텔라를 향해 첫발을 디뎠다. 약 118킬로다. 산티아고는 잊는다. 이제는 피스텔라만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스쳐온 많은 것들을 잊을 것이다. 철저히 길 위의 진솔한 '자아'가 되길 원한다. 어제 이후로 모든 걸 잊는다. 룯스도 먼 기억의 뒤뜰 어딘가에 한 송이 작은 '의식의 꽃'으로 피어 있을 뿐이다.

한참을 걷다가 내 몸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인 듯 하여 길 옆 작은 바(bar)에 들렀다.. 사과 한 개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불쑥 들어온다. 아니 이런, '룯스~!'.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도대체 뭔가? 같이 걸기로 한다. 산티아고까지 마친 순례자들 중 소수만 Fisterra를 이어 걷는다. 그래서 더욱 반갑다. 길은 길이로되 산티아고 길과는 느낌은 다르다. 우선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바(bar)나 알베르에게도 많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랴. 내 앞에 걸을 길만 있으면 행복하다. 룯스도 행복한 표정이다. 사실 모든 길은 벽이 없



길의 끝점에서 십자가 앞에선 '룻스'. 아픈 사연으로 인해 아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다.

고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길인 것이다. 걷는 간간이 시야에 대서양 바다가 들어온다. 일렁대는 파도소리는 이 바다의 오랜 영욕의 역사를 담은 듯 내 청각을 열어 자극한다. 41일째, 무시아(Muxia)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대서양의 끝점 피스텔라(Fisterra)에 닿았다. 사실 이곳이 산티아고를 지나 순례길의 종착점이 맞다. 바다를 보며 한동안 말이 없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참으려 했는데, 결국 터졌다. 이 눈물이 어디에서 그리 많이 만들어지는지. 룻스가 옆에 있어 잠시 다른 곳으로 피했다.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룻스가 눈치를 채고 머뭇거리다. '룻스 너도 같이 터져줄래?'

알베르게에 짐을 풀고 3킬로 정도 거리에 있는 Tower of Fisterra로 올랐다. 대서양이 바로 앞에 누워있고 바람이 세차다. 순례길의 대미를 장식하는 곳이다. 신발을 벗어 바다에 던지고 소지품을 태워 버리는 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고통과 욕심을 연기로 날려 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식이다. 룻스는 노란 천을 집에서 준비를 해왔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 걸어 놓는다. 그리고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것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룻스가 자그마한 위스키 술병을 꺼내 자축하자고 하면서 굳이 나 먼저 마시라고 내 손에 쥐어 준다. '하~ 뜨겁다'. 몇 모금씩 마시고 서로 끌어 안고 등을 토닥여 준다.

'룻스 고맙다, 잘 했다. 널 못 잊을 거야'

해가 바다 저편으로 가라 앉고서야 헤드랜턴을 밝히며 숙소로 돌아와 다시 비노를 열어 서로 격려하고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축하했다. 이것이 과연 '끝' 일까? 끝이란 없다. 계속 이어져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삶이 그렇지 않겠나. 인생의 순례는 계속 이어지고 이어질 테니 말이다. 비노가 모자라 내가 결국 늦은 밤 시내를 뒤져 한 병을 더 구해왔다. 룻스와의 마지막 밤이자 까미노의 마지막 밤이므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니 잠이 오질 않았다.

고맙다 모두에게.

다음날 아침 산티아고로 돌아오는 버스 안, 각각 다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창 밖만 내다본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나. 갑자기 속이 메스거리며 멀미 증세가 나타나는 건 뭐지? 산티아고 버스 터미널에 다다르면서 룻스와 나는 무엇이 우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아마도 서로에게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서로 쳐다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외락 끌어 안았다.

"룻스, 잘 가..너 때문에 더 많이 행복했다. 부디 건강하고 어디서든 더 행복해야 해. 알았지?"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 룻스가 눈이 벌개서 먼저 돌아선다.

'착한 룻스, 결국 너를 통해 나를 봤구나!'

포르투갈의 포르투(Porto)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 나는 또 다시 어디론가 떠난다.

"Adios Santiago, Muchas Gracias!"

지면 관계상 세세한 순례여정을 실지 못해 아쉽습니다. 매일 걷고 난 후의 소회를 있는 그대로 그날그날 저녁에 저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을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블로그 주소(<http://blog.naver.com/gooodkim>)를 남겨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단회비

600,000원

| | | | |
|-----|--|-----|--|
| 17회 | 장재인, 김성지, 선우영환, 송진섭, 신상직, 신창억 안환옥, 유종관, 이완철, 이희정, 주완표 | 26회 | 김안식, 오옥희, 윤용혁, 최민규, 한갑현 |
| 18회 | 박계환, 전광우, 정명진, 조종형 | 27회 | 곽나윤, 김정호, 박영달, 한봉길 |
| 19회 | 이경옥, 윤건섭, 김경오 | 28회 |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전금용, 최용철 |
| 20회 | 김현태, 박기배, 유영내, 이상일, 정찬현 | 29회 | 손병로, 유종운, 강대용 |
| 21회 | 김수배, 김중효, 최병철, 박전희, 홍종오 | 30회 | 고석일, 김광식, 백영주 |
| 22회 | 강희운, 유대식, 전일수, 최광훈 | 32회 | 정선종, 조양연 |
| 23회 | 박종화, 임준석, 정덕기, 한치완 | 33회 | 김은곤, 조준상 |
| 24회 |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황규진 | 34회 | 김보원 |
| 25회 | 김광호, 김희섭, 이내홍, 최두주 | 35회 | 도건호, 이경선, 임중식 |

이사회비

150,000원

| | | | |
|-----|--|-----|--------------------|
| 1회 | 이동화, 손동헌, 홍흥만 | 15회 | 조찬휘 |
| 2회 | 지선훈 | 16회 | 이은술, 고숙자, 백승복, 최창원 |
| 3회 | 손석우, 강승조 | 17회 | 양희익, 전상훈, 정갑진, 김재천 |
| 4회 | 정재환 | 18회 | 강응모, 임태영 |
| 5회 | 윤원영 | 20회 | 조진환, 이신규, 이극선, 최석중 |
| 6회 | 안인혁, 안병한 | 21회 | 백운경, 이상준 |
| 7회 | 정재인, 박명신, 이기안, 이양현, 유영후, 서명규 | 22회 | 오황영, 이현희, 이명옥 |
| 8회 | 한석원, 조의환, 박번일, 장영자 | 23회 | 서동철, 박희용 |
| 9회 | 이규진, 권혁구, 윤광노, 문영동, 박장우, 김홍래 이근배 | 26회 | 김정수A, 문형철, 최태영 |
| 10회 | 이흥수, 유정사, 박호일, 변도문 | 27회 | 윤영한 |
| 11회 | 박찬희, 고승하, 김미자, 최옥출, 김창중, 황공용 | 28회 | 유희동 |
| 12회 | 김 구, 이관하, 이성우, 심재웅 | 29회 | 김은진 |
| 13회 | 서국진, 이종각, 조성복, 윤해선, 안병식 | 30회 | 최병원, 최병태 |
| 14회 | 조영연, 윤대봉, 김명웅, 김동원, 조길도, 구종모 김종렬, 김윤국 | 34회 | 김영미 |
| | | 35회 | 최규룡 |

| 일반회비 | | 30,000원 |
|------|---|--|
| 8회 | 안덕기, 오창준, 조수현, 윤광중, 엄규중, 유재우 이백천, 홍신표, 최영자, 최재욱, 박희휘, 강윤구 신현우 | 28회 김미경, 한성호, 조한군, 조효금, 견주남, 양창국 장민수, 김광선, 임춘식, 유정수 |
| 9회 | 노신희, 이경주, 손승언, 한정희, 박정자, 최보혜 정상모, 김학진, 권오성, 윤경자, 박장규 | 29회 한규인, 장우성, 민희정, 심미선, 안성진, 김종선 김인혜 |
| 10회 | 이원일, 이흥만 | 30회 이경숙, 이소영, 조민숙, 고은숙, 홍염미, 순억 |
| 11회 | 강일성, 양계창, 구자억, 오성근, 차영진 | 31회 서경찬, 이정희, 류문숙, 유영숙, 이동익, 박희선 |
| 12회 | 유건수, 이만오, 홍정덕, 홍근수, 문혜성, 임순성 이정희, 이 훈 | 32회 채영주, 정현삼, 안승희, 이명선, 김형기, 이경준 안광열 |
| 13회 | 이우식, 최승기, 김세대, 조성도 | 33회 송강준, 이종탁 |
| 14회 | 홍성철, 이용성, 조병화, 이춘재, 현혜경, 김영일 전영표, 김명수, 류효성, 안해봉, 우영철 | 34회 박상권, 이 준, 이선우, 김종국, 김용수, 전형수 |
| 15회 | 이명숙, 김대웅, 남석우, 박태호, 김용규, 정육주 박인호, 이인석, 이덕노, 진총렬 | 35회 김 진, 김성훈, 송지숙, 정민식 |
| 16회 | 김광길, 권희문, 박종애, 신규언, 신진숙 | 36회 김영준, 장문정 |
| 17회 | 원종천, 신승백, 원종천, 김상집, 조기남 | 37회 한덕희, 홍희선 |
| 18회 | 여운숙, 육득윤, 이복숙 | 38회 임규리, 김수규, 이명희 |
| 19회 | 박운흥, 송택용, 배영덕, 남윤수, 송택용, 장호성 정동훈 | 39회 신순옥 |
| 20회 | 김길주, 송열호, 김영식, 김종갑, 최용철, 박지순 | 40회 이병두 |
| 21회 | 김용주, 박기수, 신길득, 임정한, 송진용 | 41회 최명수, 신유미, 최현진 |
| 22회 | 박동우, 이정석, 김인선, 천경호 | 42회 김윤주, 최지혜, 이창경 |
| 23회 | 오신환, 나용태, 임창영, 송욱기, 한병철 | 43회 이경은, 장선영 |
| 24회 | 안용태, 함한상, 오세홍, 홍용기, 김기준, 김정무 임철빈, 문숙희, 양성철, 정상수 | 45회 심미순, 고기현 |
| 25회 | 김선열, 이수근, 이동규, 이영제, 김완기 | 51회 안중모, 박운호, 문효진 |
| 26회 | 김기형, 양승훈, 이순아, 손영상, 손영득, 이승헌 나종우, 김재억 | 54회 송지은, 김용호, 윤초롱 |
| 27회 | 송재욱, 염승호, 전명수, 이상필, 한규정, 최호진 | 55회 정재한, 강혜진 |
| | | 56회 이경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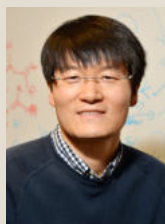


2014-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 번호 | 장학금명 | 장학금액(원) | 전공 | 성명 |
|----|-----------|-----------|-----|-----|
| 1 | 본동문회 | 2,500,000 | - | 정민경 |
| 2 | 본동문회 | 2,500,000 | 약학 | 나은지 |
| 3 | 본동문회(김명섭) | 2,000,000 | 제약학 | 이희주 |
| 4 | 본동문회 | 1,500,000 | - | 김민지 |
| 5 | 본동문회 | 1,500,000 | 약학 | 심기현 |
| 6 | 본동문회(청호) | 1,000,000 | 제약학 | 김혜수 |
| 7 | 본동문회 | 1,000,000 | - | 최동균 |
| 8 | 본동문회 | 1,000,000 | 제약학 | 강진국 |
| 9 | 본동문회 | 1,000,000 | 제약학 | 박지현 |
| 10 | 본동문회 | 1,000,000 | - | 김수빈 |
| 11 | 여동문회 | 1,000,000 | 제약학 | 이수빈 |
| 12 | 26회동기회물방울 | 1,000,000 | 약학 | 고민혜 |

| 번호 | 장학금명 | 장학금액(원) | 전공 | 성명 |
|------------|-----------|-------------------|-----|-----|
| 13 | 26회동기회물방울 | 1,000,000 | 제약학 | 홍록기 |
| 14 | 부산여동문회 | 1,000,000 | 약학 | 김순식 |
| 15 | 천안동문회 | 1,000,000 | 약학 | 김미나 |
| 16 | 강서동문회 | 1,000,000 | - | 서유미 |
| 17 | 약제반동문회 | 2,000,000 | 약학 | 강유진 |
| 18 | 나사모동문회 | 1,500,000 | 약학 | 양정원 |
| 19 | 약품물리반동문회 | 1,000,000 | 약학 | 심재훈 |
| 20 | 약품물리반동문회 | 1,000,000 | 약학 | 김소정 |
| 21 | 병태생리학동문회 | 1,000,000 | 제약학 | 김영인 |
| 22 | 부산동문회 | 500,000 | 약학 | 김승민 |
| 23 | 안산동문회 | 1,000,000 | 제약학 | 최인준 |
| 총 계 | | 29,000,000 | |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신임 교수



오 경 수 E-mail kyungsoooh@cau.ac.kr

직위 부교수 전공 유기/의약 화학

학력
 1996.09~1999.07 University of London
 (전공: Chemistry), B.Sc.
 1999.09~2003.02 University of Sussex
 (전공: Chemistry), D.Phil.

경력
 2002.11~2005.07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pt. of Chemistry),
 Postdoctoral Fellow
 2005.08~2011.07 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Dept. of Chemistry & Chemical Biology),
 Assistant Professor
 2011.08~2014.08 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Dept. of Chemistry & Chemical Biology),
 Associate Professor
 2014.09~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김 훈 영 E-mail hunykim@cau.ac.kr

직위 조교수(연구전담) 전공 유기화학(비대칭합성)

학력
 1993.03~1997.02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1997.03~1999.02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이학석사
 2003.08~2008.12 University of Pennsylvania,
 Chemistry, Ph.D.

경력
 1999.02~2001.03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2001.03~2003.05 삼성 SDI 중앙연구소 전임연구원
 2008.10~2014.08 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Research Scientist
 2014.09~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전담 조교수

장학기금현황

2015년 2월 10일 현재



| | | | |
|-----------------------|-------------|----------------|-----------|
| 장재인(17회) 동문회장 | 10,000,000 | 한갑현(26회) 사무총장 | 7,400,000 |
| 손동헌(1회) 명예교수 | 30,000,000 | 이채권(26회) 동문 | 5,000,000 |
| 홍흥만(1회) 동기회장 | 1,000,000 | 이종양(26회) 동문 | 3,000,000 |
| 1회 동기회 일동 | 1,000,000 | 성정희(26회) 동문 | 360,000 |
| 故 김명섭(5회) 자문위원 | 100,000,000 | 김정호(27회) 사무부총장 | 6,000,000 |
| 용영일(7회) 동문 | 5,000,000 | 남상진(27회) 동문 | 3,000,000 |
| 최옥출(11회) 동문 | 1,000,000 | 박영달(27회) 동문 | 3,000,000 |
| 김윤국(14회) 동문 | 5,000,000 | 권상수(27회) 동문 | 3,000,000 |
| 최해광(17회) 동문 | 3,000,000 | 최충식(27회) 이사 | 3,000,000 |
| 이경옥(19회) 동문 | 3,000,000 | 민병희(27회) 이사 | 600,000 |
| 임경원(20회), 이현숙(31회) 동문 | 7,200,000 | 이영주(28회) 사무부총장 | 6,000,000 |
| 김현태(20회) 부회장 | 3,000,000 | 양덕숙(28회) 부회장 | 5,000,000 |
| 이상일(20회) 부회장 | 8,000,000 | 장원규(28회) 동문 | 3,000,000 |
| 이극선(20회) 동문 | 3,000,000 | 이경우(29회) 동문 | 900,000 |
| 정찬현(20회) 동문 | 3,000,000 | 곽필신(30회) 동문 | 3,000,000 |
| 이승해(23회) 동문 | 10,000,000 | 고석일(30회) 동문 | 3,000,000 |
| 이내홍(25회) 부회장 | 3,000,000 | 이병두(40회) 동문 | 3,000,000 |
| 이동규(25회) 동문 | 8,000,000 | 김정민(41회) 동문 | 3,000,000 |
| 김영후(26회) 이사 | 6,000,000 | 정원희(53회) 동문 | 2,000,000 |



다시 찾은 약학관

루이스 가든을 아시나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파이퍼 홀을 아시나요?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May you live all the days of your life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날들은 우리의 생애에 주어진 날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을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알차게 산다는 것은
의식이 깨어 있는 매 순간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조나단 스위프트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지난해 말부터 어찌어찌하여 집사람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들 이 나이에 웬 축복(?)이냐며 화장실에서 웃느냐고 물어보는
녀석들에게 일갈한다.
국내에선 체면상 차마 그러지못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싱가폴 새우잡이배에 마누라 태웠노라고!

김정호(27회)
편집위원

동문회보 다음호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그러나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된다.
2차 또는 3차의 편집회의를 거치며 내용이며 분량이며 순서며
사진 크기며 활자 크기 등등이 수정되고 보완된다.
그리하여 드디어 발간을 앞둔 설레임에 젖는 순간, 제작비며 발송비를
충당할 수 있는 광고가 마감이 안된다.
집집마다 곳간 사정 어렵기는 매한가지, 그러나 회보를
받아보는 동문들로부터 그야말로 십시일반 일반회비가 구름처럼 걷혀서
그냥 동문들 살아가는 이런저런 소식 전하는
동문회보가 광고 핑계 대지 않고 제때 발간되는 것이 소박한 꿈이라면
꿈이다!

월경전증후군! 숙명이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고통을 참아오셨다면 이제 참지 마세요.
프리페민이 당신을 월경전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 짜증스러움

✓ 피부문제

✓ 수면장애

✓ 우울

✓ 심한 감정기복

✓ 아랫배 통증

✓ 신경과민

✓ 피로

✓ 가슴통증

✓ 두통



월경전증후군, 참지말고 확인해보세요!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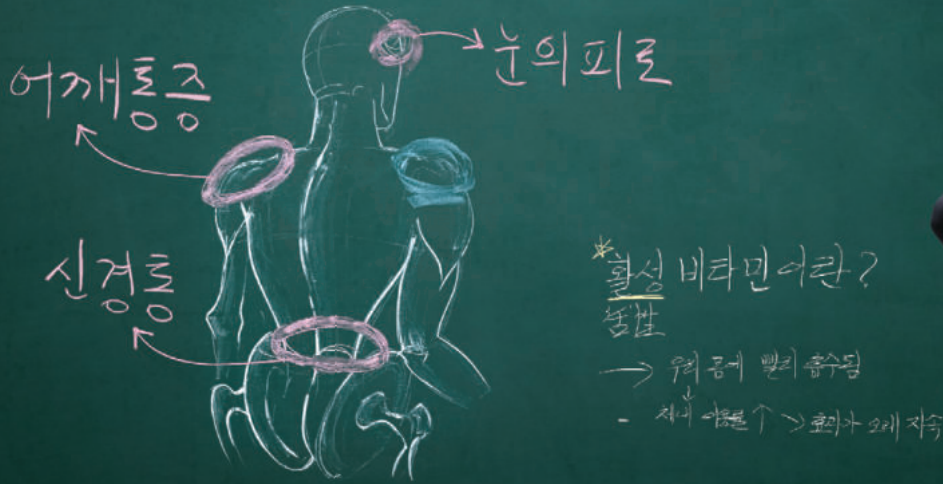


국내 최초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 **프리페민정**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프리페민으로 치료하세요!

프리페민 홈페이지 www.prefemin.co.kr 구입처문의 및 소비자상담실 : 080-6776-080 (수신자부담)

아로나민 골드를 드신 날과 안드신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피로회복제라고 효과가 모두 같을까요?
아로나민은 '활성비타민 효과'로 말합니다

피로 그날 쌓인 피로를 그날 풀어주지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어깨통증 어깨와 목 뒤쪽으로 뻐근하고 무거워요. 손가락 마디
관절통증도 있구요.

눈의 피로 피로가 눈으로 먼저 와요. 눈이 침침하고 뻑뻑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책을 오래 못 봅니다.

신경통·근육통 신경과 근육에 쌓인 피로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욱신겨려요.

병중병후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금세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영양이 부족하니 피로회복도 더디네요.



2014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종합영양제부문 1위
주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피로의 증상은 달라도, 피로회복제는 아로나민골드

활성비타민B1, B2, B6와 비타민C·E는 근육과 신경에 쌓인 피로를 잘 풀어주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어 드신 날과 안 드신 날, 활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피로, 눈의 피로,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어깨통증/허리통증), 병중·병후 체력저하시

제품문의 080-022-1010 (지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aronamin.ildong.com>



감기까지 생각한다면 케어가글

입속살균은 물론 편도염, 후두염, 인두염, 구내염까지
우리가족 입속건강과 감기예방을 위해~



광고심의필 : 1271-0100

강력한 입속세균 살균! 살균력이 강한 의약품으로 구취, 충치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감기예방까지 OK!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으로 감기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제품문의 080-916-9000

■ 성분 100mL 중 벤제토늄염화물(KPI)10mg, 황가제(타르색소)·향료·착색료
■ 효능효과 구강염증 및 인두(목구멍) 발통·발적·소통·살균, 감기(예방, 감기에 따른 증상 후두염, 인두염, 편도염, 치주(치아)주위조직염, 구내염인염, 구종양)·발치(이물)흡입수술 또는 구강수술 후의 소독·살균 및 충치의 예방
■ 용법용량 용상 1일 2~3회, 1회 50mL(15mL)을 사용해서 인도를 향하여(물로 헹구어 낼 필요가 없음·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는 투여하지 말 것 (30개월 이하의 유아) 2. 다음 환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소아) 경면유발할 수 있다 3. 다음 환자는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의 상의 할 것 (구내에 저투입이 심한 사람) 4. 약학적 주의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킬 것 2) 소아 사용시 보호자 감독하에 사용할 것 3) 본 제제는 구강염증(치주염)으로만 사용하고 내복용, 기타에 사용하지 말 것 4) 본 제제를 사용할때 자극성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의 상의 할 것 5) 수일간 사용시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의 상의할 것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3) 오용(잘못사용)방지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보관하지 말 것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